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7년 6월 18일

제07-28호

[상세 내용]

미국경제 동향 및 전망(2007년 1분기)

이준규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팀장 (junkyul@kiep.go.kr, Tel: 3460-1128)

김종혁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Tel: 3460-1193)

고희채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연구원 (hcko@kiep.go.kr, Tel: 3460-1086)

주요 내용

- 미국경제는 2007년 1분기 성장률이 1.3%(속보치)를 기록하여 2003년 1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을 기록하였고,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는 2006년에 비해 고용 시장 악화 조짐이 발생하고 있음.
- 미 FOMC(공개시장조작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발표문에서 2007년 1분기 미국경제의 성장 부진을 지적하고, 주택부문 조정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2분기 이후 경제성장이 적절한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 2007년 2분기 성장률은 2.2% 이상으로 예상되고, 2007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2.1~2.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2007년은 미국경제가 장기 성장률 추세선 이하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소비는 2006년 4분기 4.2%, 2007년 1분기 3.8% 성장하여 주택부문의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2007년 2분기부터는 소비지출이 조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주택부문의 저조는 2007년 내내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업부문의 설비투자과 수출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1. 배경

- 2006년 말에 나온 2007년 미국경제 성장 전망에 비해 최근 전망치는 다소 하향 조정되고 있음.
- 미국경제는 2007년 1분기 성장률이 1.3%(전기대비 연율, 속보치)를 기록하여 2003년 1분기의 1.2%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을 하였고,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2007년 들어 고용시장 악화 조짐이 발생하고 있음.
- 게다가 2006년 4분기와 유사하게 주택부문의 투자가 17%나 감소해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나 하락시켰고, 이러한 주택시장의 저조한 투자는 2007년 말까지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IMF는 2006년 9월에 2007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하였으나 2007년 4월에는 2.2%로 하향 조정하였고, OECD는 2007년 5월 전망치에서 미국경제가 1분기 저점을 통과해 2분기에 점차 회복되어 2007년 전체로는 2.1%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버냉키 의장은 지난 5월 17일 시카고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서브프라임모기지 시장의 어려움을 큰 문제 없이(without serious problems) 견뎌낼 것으로 전망하고 주택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함.
- 미 재무부 장관 Kimmit은 5월 19일 G8 미팅에서 미국경제가 1분기에 낮은 성장을 하였으나, 2분기 이후부터 점차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함.
-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7년 1분기 미국경제 성장을 주요 부문별로 진단해 보고, 2007년의 미국경제 성장을 전망하고자 함.

2. 최근 미국경제 진단

가. 미국 1분기 거시 경제: 경기 저점 통과 추정

- 2007년 1분기 미국경제는 1.3%(속보치)의 성장을 기록하여 2005년 3.2%, 2006년 3.3%, 2006년 4분기 2.5%의 성장에 이어 저조한 성장세를 기록하였음.

- 1분기 미국경제는 견조한 소비세 지속 및 기업 설비투자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약화 심화와 고용 증가 추세의 점진적 약화로 인해 부진한 성장률을 보임.
- 미국경제는 1분기에 경기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2분기부터 소비는 다소 약화, 주택부문은 약세 지속이 전망되는 반면, 투자와 순수출의 회복이 예상되어, 향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 1. 주요 거시 경제 지표

(단위: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4	2/4	3/4	4/4	연간	1/4 ¹⁾
실질GDP	3.9	3.2	5.6	2.6	2.0	2.5	3.3	1.3
개인소비지출	3.9	3.5	4.8	2.6	2.8	4.2	3.2	3.8
민간총투자	9.8	5.4	7.8	1.0	-0.8	-15.2	4.3	-6.5
(설비투자) ²⁾	7.3	8.9	15.6	-1.4	7.7	-4.8	6.5	1.9
(비주거 건설투자)	2.2	1.1	8.7	20.3	15.7	0.8	9.0	2.2
(주택건설투자)	9.9	8.6	-0.3	-11.1	-18.7	-19.8	-4.2	-17.0
정부지출	1.9	0.9	4.9	0.8	1.7	3.4	2.1	0.9
순수출(십억 달러) ³⁾	-590.9	-619.2	-636.6	-624.2	-628.8	-582.6	-618.0	-597.8
(수출)	9.2	6.8	14.0	6.2	6.8	10.6	8.9	-1.2
(수입)	10.8	6.1	9.1	1.4	5.6	-2.6	5.8	2.3

주: 1) 속보치 2) 소프트웨어 포함 3) 연간 환산치
 자료: 미 상무부(2007. 5)

나. 주택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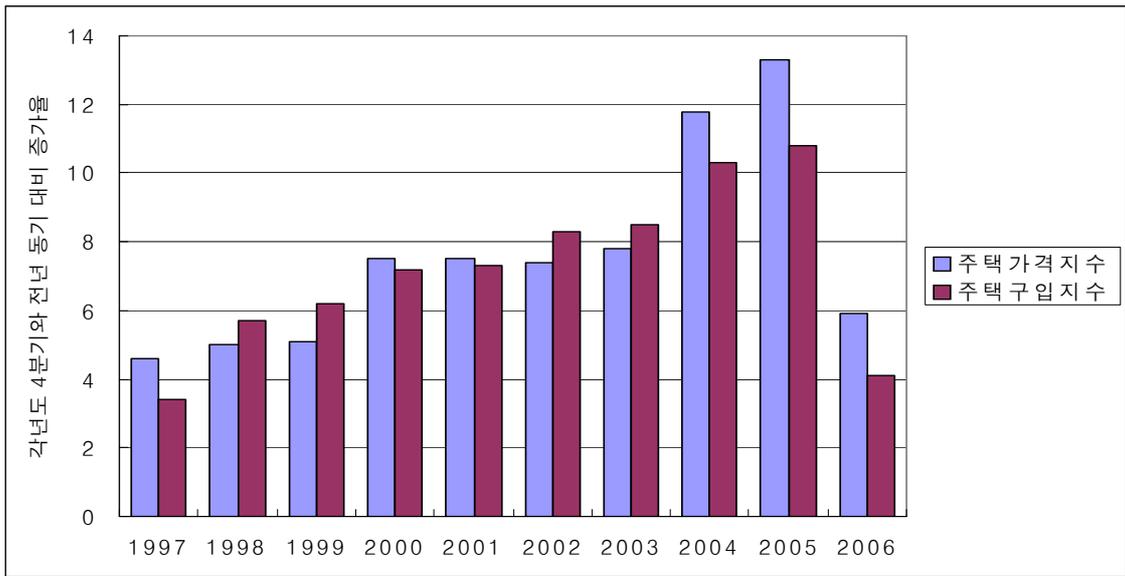
- 지난 해 미국경제 둔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주택가격 하락은 최근 일시적으로 진정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주택부문의 소비 및 성장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2007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 중간가격(median price)은 2006년 7월 230,200달러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07년 1월에는 210,900달러를 기록하였으나 그 후 석 달 연속 상승하여 2007년 4월에는 220,900달러를 기록함.¹⁾
- 한편 전미부동산중개사협회는 2007년 기존주택 판매가격²⁾이 21만 9,800달러로 2006년에 비해 1%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여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가 2007년 계속될 것을 시사함.

1) 전미부동산중개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NAR)에서 발표한 자료로 계절조정하지 않은 수치임.
 2) 이는 올해 부동산 경기침체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하여 기존 하락폭 전망치 0.7%를 하향 조정할 것임. 전미부동산중개사협회가 매년 주택가격 집계를 시작한 1968년 이후 기존주택 가격이 떨어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음.

■ 연방주택감독청³⁾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지수⁴⁾는 199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05년 2분기 이후 주택가격 증가율이 급속히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작년 한 해 동안의 주택가격지수 상승률은 5.9%로 지난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림 1. 미국 주택가격지수 증가율



주: 주택가격지수는 주택자금 대출 중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과 리파이낸싱(저금리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위한 자금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나 주택구입지수는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만 사용하여 계산함.

자료: OFHEO, Fannie Mae and Freddie M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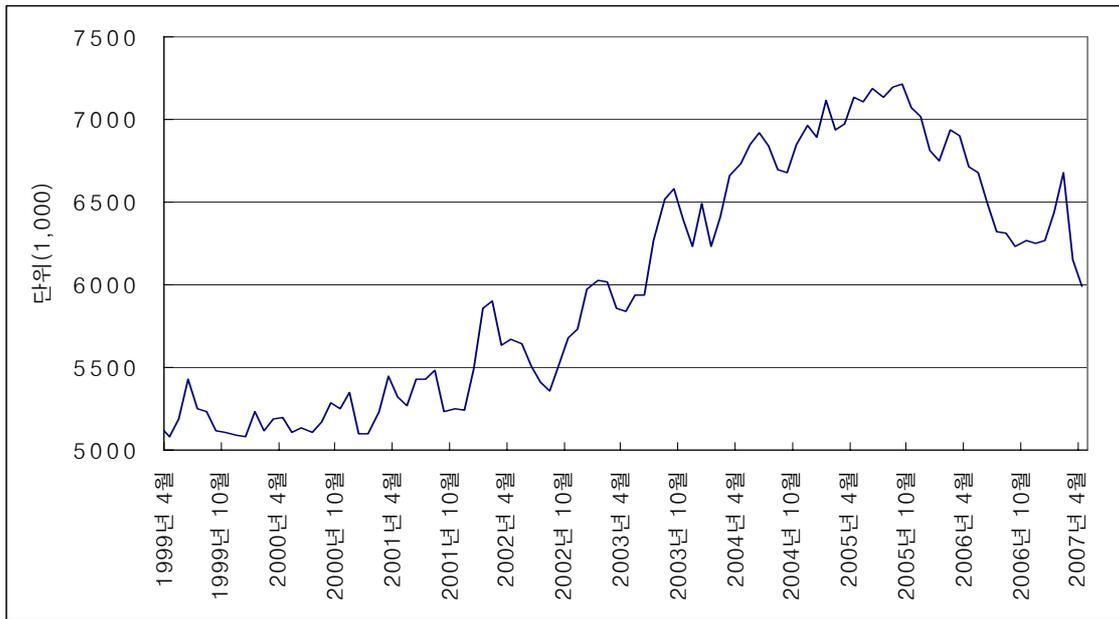
■ 2007년 1분기에는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판매 및 건설경기 지표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가 최고조에 올랐음.

- 기존주택 판매량은 2007년 4월 599만 건으로 전달에 비해 2.6% 하락하였고, 2006년 동월 대비 10.7% 하락하였음. 이는 2003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3) 연방주택감독청(Office of Federal Housing Enterprise Oversight:OFHEO)은 패니메와 프레디맥(Fannie Mae and Freddie Mac)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기지 거래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택가격지수(House Price Index)를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음. 미국 모기지 거래의 대부분이 모기지 파이낸싱 업체인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거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회사의 비중이 높음.

4) 주택가격지수에는 단독주택만 반영되며 콘도나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은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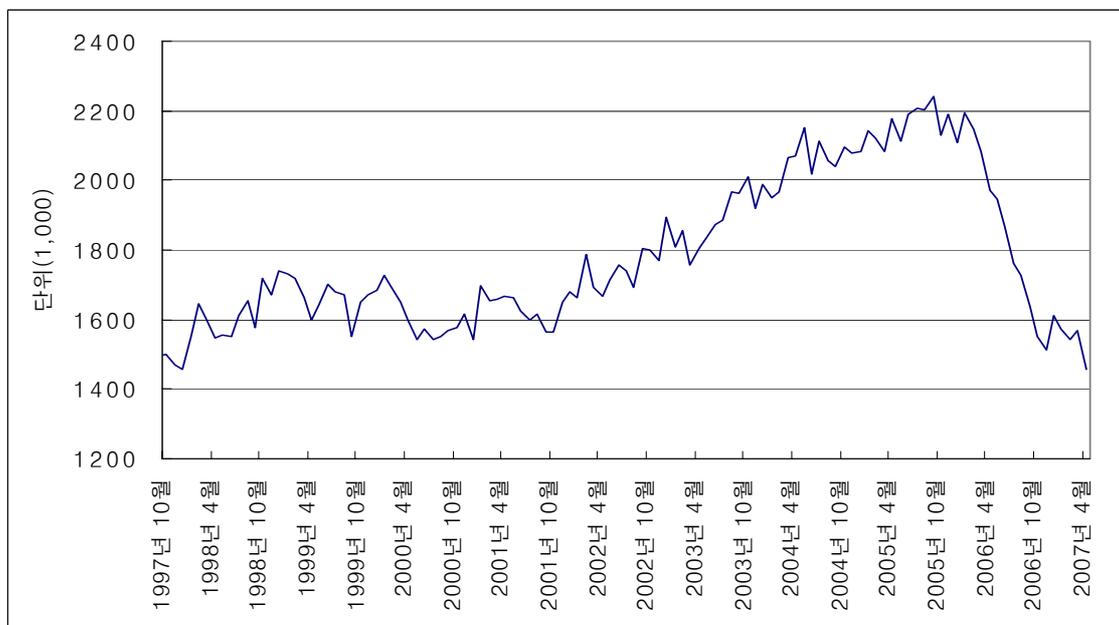
그림 2. 기존주택 판매 추이



자료: 전미부동산중개사협회 (2007. 5.)

- 미래의 주택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신규주택 건설허가의 경우 2007년 4월은 3월 대비 8.9% 감소하였고, 2006년 4월 대비 28.1% 감소하였음.

그림 3. 미국 신규주택 건설허가 추이



자료: 미 Census Bureau (2007. 5)

-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에 대한 우려는 지난 1분기에 최고조에 달했으며, 아직도 그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음.

-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문제로 인하여 미국 2위 서브프라임 회사인 뉴센츄리파이낸셜⁵⁾을 비롯한 모기지 관련 업체의 주가가 폭락한 바 있음.
- 그러나 급격한 실업률 증가와 금리인상 등과 같은 경제의 다른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이 향후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다. 고용·노동생산성·노동 비용 동향

- 2007년 1분기 중 비농업부문 월평균 취업자 수는 약 129,300명이 증가하였고, 동기간중 평균 실업률이 4.5%를 기록하였지만 2006년의 월평균 189,000명에 비해 고용이 약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한편 1분기 중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지난 4분기 2.1%에서 1.7%로 소폭 둔화되었고, 1분기 단위노동비용 상승률은 4분기 6.2%에서 1분기 0.6%로 크게 둔화되어 고용 부문의 인플레이 압력이 감소하였음(표 2 참고).

표 2. 노동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 추이

(단위 : 전기대비 연율,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4	2/4	3/4	4/4	연간	1/4
노동생산성	2.9	2.1	3.5	1.2	-0.5	2.1	1.6	1.7
단위노동비용	0.6	2.0	9.1	-2.5	1.1	6.2	3.2	0.6

자료: 미국 노동부(2007. 5)

라. 물가 및 유가 동향

- 1분기 중 전반적인 물가 오름세는 전년동기(2006년 1분기)와 비교해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의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근원 인플레이션의 상승폭은 확대되었음(표 3 참고).
- 1분기 중 소비자물가(CPI)는 전년동기대비 2.4% 상승하여 전년동기(3.7%)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으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ore CPI)는 오히려 전년동기에 비해 0.5% 상승한 2.6%를 기록하여 연준의 물가안정 구간을 다소 상회함.⁶⁾

5) 현재 파산보호 신청을 하고 주요 자산을 매각할 방침임.

6) 또한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core PCE) 가격지수도 2.2% 올라 전년동기(1.8%) 및 연준의 물

표 3. 미국의 물가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전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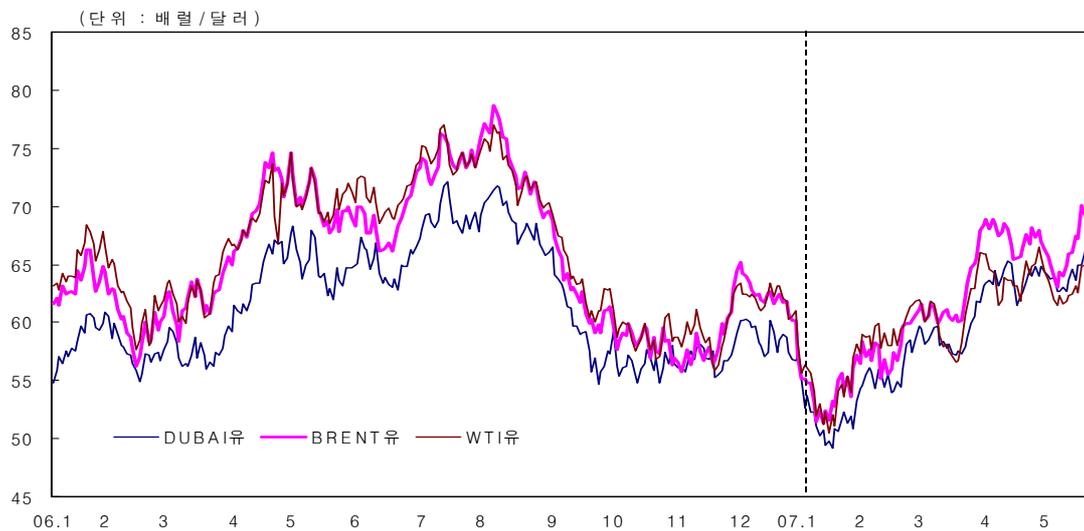
	2005년	2006년					연간	2007년
		1/4	2/4	3/4	4/4	1/4분기		
소비자물가	3.4	0.5 (3.7)	1.2 (4.0)	0.8 (3.4)	-0.5 (1.9)	3.2	0.9 (2.4)	
근원소비자물가	2.2	0.6 (2.1)	0.8 (2.4)	0.7 (2.8)	0.5 (2.7)	2.5	0.6 (2.6)	
생산자물가	4.9	0.0 (4.4)	0.9 (4.4)	0.2 (2.8)	-0.8 (0.3)	3.0	1.7 (2.0)	
근원생산자물가	2.4	0.7 (1.6)	0.5 (1.6)	0.0 (1.1)	0.3 (1.5)	1.5	1.0 (1.7)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미 노동부

■ 국제유가는 연초 난방유 수요 감소 전망 등으로 급락하였으나, 1월 중순 이후 미 동부지역의 한파 및 전략비축유 확충 계획 등으로 반등하기 시작하여 이후 OPEC의 추가 감산, 이란 핵문제 및 나이지리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요인으로 상승하는 추세임.

- 이에 따라 DUBAI유, BRENT유, WTI유 1분기 중 평균 가격은 각각 배럴당 55.6달러, 58.2달러, 58.1달러를 기록하였음(그림 4 참고).

그림 4. 국제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2007. 5)

가안정구간(comfort zone: 1-2%)을 다소 상회함.

3. 미국경제 전망

- 2007년 미국경제는 1분기에 경기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2분기부터는 점진적인 성장세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으로 추세선 이하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2분기 성장률은 2.2%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2007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은 2.1%~2.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미국의 무역적자는 세계경제의 견조한 성장과 달러화 약세에 의한 수출 부문의 호조, 미국경제 성장률 하락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2006년의 8,360억 달러 규모(GDP의 6.3%)에서 약 7,910억 달러(GDP의 5.7%)로 감소할⁷⁾ 것으로 전망됨.

표 4. 주요 기관의 미국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2006	2007	2008
IMF	3.3	2.2	2.8
OECD	3.3	2.1	2.5
Global Insight	3.3	2.1	2.8

주: IMF는 2007년 4월, OECD는 2007년 5월, Global Insight는 2007년 5월 전망치임.

- 소비는 2006년 4분기 4.2%, 2007년 1분기 3.8% 성장하여 주택부문의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2007년 2분기부터는 소비지출이 조정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주택가격 하향 안정의 지속과 2006년 가을 이후 주택담보 대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고용 약화 징후와 함께 2분기부터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주택부문 저조는 2007년 내내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업부문의 설비투자와 수출이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7) 2007년 5월 Global Insight 전망치

■ 인플레이션과 금리 전망

- 2007년 1분기에 물가상승의 압력이 정점에 다다른 것으로 추정되고, 2분기부터는 물가상승의 압력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추세는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FRB는 물가상승 압력을 지켜보며 2분기까지 현행과 같은 5.25%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하반기에 예상보다 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고용시장이 뚜렷이 악화되는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0.25% 정도 크기로 최소 한 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